

한국어 사전 편찬과 문법 문제

홍 재 성

(연세대 교수, 불어학)

1. 머 리 말

우리는 이 글에서 사전 편찬과 문법 문제의 관련 양상을, 몇 가지 제한된 구체적 사례의 검토를 통해 분석해 봄으로써, 현행 한국어 사전의 개편이나 보완, 또는 좀더 새롭고 개선된 한국어 사전의 편찬을 위해 도움이 될 몇몇 제안을 표명해 보고자 한다.

사전과 언어 연구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긴밀한 관계 중의 주요한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사전 편찬과 문법 문제의 연계성’에 대하여, 우리는 사전 구성에 있어 문법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칙적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의 분석을 이끌어 갈 것이다.

이 글에서 문법 문제라 함은 언어 체계의 형태론적 분석의 문제와 통사론적 분석의 문제를 포괄하여 지칭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심적 고려의 대상이 되는 사전의 유형은, 백과 사전 encyclopédie 과 대립되는 언어 사전 dictionnaire de langue 으로서의 현대 한국어 단일어 사전으로 국한된다. 또한 그것은 선별형 사전 dictionnaire sélectif 이 아닌 확장형 사전 dictionnaire extensif 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¹⁾

1) 사전은 그 기능이나 규모, 내용, 잠재적 독자층 등등의 요인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화되어 있다. 우리는 불어 사전학의 논의에서 통용되는 사전 유형론을 그대로 활용하여, 백과 사전/언어 사전, 단일어 사전/이중어 사전, 확장형 사전/선별형 사전 등의 기본적 구분을 차용한다. 지면 관계상, 마지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 단일어 사전 편찬 활동의 주요한 경향을 —또는 관례— 지적하자면, 대체로 큰 규모의 한국어 사전은 백과 사전과 언어 사전의 혼합·절충적인 확장형 사전이라는 점일 것이다. 이 유형의 사전이 지닌 두드러진 특징은 상당수의 고유 명사를 표제어로 수록하며, 전문 기술 용어 역시 대폭 기록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관한 항목의 전개가 일반 어휘에 대한 기술보다 더 길고 비중있게 —삽화나 도해 또는 사진 등 시각적 이미지마저 활용하여 —다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혼합적 성격의 사전도 그 나름대로의 유용성과 기능은 충분히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한국어 사전의 근본적 문제성은, 언어 사전적인 부분의 기술이 종종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지나치게 소홀하거나 빈약하고 또한 부정확한 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비추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평이하고 평범한, 원리적 주장을 표명하면서²⁾ 이에 바탕을 둔 실례의 분석을 행해 보고, 또한 이러한 분석에 입각하여 이 주장의 타당성을 좀더 굳혀 보고자 하는 것이다.

—사전 편찬 내지는 사전 텍스트의 작성에 있어 표제어에 관련된 문법 정보의 체계적 활용과 수록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³⁾

이 점은 현행 한국어 사전의 진단에 입각한 실천적·시사적 중요성만

막 구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덧붙이기로 하자. 확장형 사전이란, 공통 일반어 이외에 많은 전문 기술 용어나 신어, 또는 지방어, 속어 등을 가능한 한 개방적으로 표제어 mot-entrée 로 등재함으로써 한 언어의 어휘 lexique 의 총체를 기술하고자 지향하는 (지향할 뿐 실제로는 이러한 목표가 실현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사전을 말한다. 반면에, 여타 기준에 입각하여 한 언어의 어휘의 일부 또는 특정 부분만을 표제어로 삼아 제한적 기술을 꾀하는 사전을 선별형 사전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기본어 사전, 방언 사전, 고어 사전, 전문 용어 사전 등은 두 번째 유형의 혼한 예가 될 것이다.

- 2) 일반 언어 사용자의 소박한 「관점에서는, 사전과 문법이란 서로 대립되면서 동시에 상보적인 언어 기술의 두 측면으로 파악될 것이기에 사전에서 문법이 중요하다는 단언은 그리 평이하고 법상한 주장은 아닐지도 모를 것이다. 흔히 문법은, 개별 단어를 초월하는 단어의 분류 사이의 일정한 결합 관계를 규칙의 형태로 기술하는 것이고,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특히 의미 정보나 용법—를 제공해 주는 것을 사전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 3) 이 주장이 내포하는 문제의 여러 측면, 또 그 사전학적 논거는 홍 재성(1986b)에서도 구두로 소개되었다. 우리는 이를 되풀이 하지 않고 원칙적인 면에서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보고, 실례 분석을 통해 그 근거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절에서 잠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사전의 바로 본질적 성격에 의거하여 문법 문제의 중요성은 더욱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글은 표제어에 관련된 문법 정보가 사전을 구성하기 위한 편찬 작업을 통해 어떻게 활용되며, 또한 어떠한 문법 정보가 실제 사전 항목의 기술에 어떻게 표시되는가(또는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생산적·발생론적 시각 —현행 사전의 미비점을 보완·수정하거나 새로운 사전의 편찬을 구상해 보는 시각이라는 의미—에서 살펴 보는 작업의 한 토막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더욱 제한해서, 사전 편찬 작업에 있어 문법 정보의 암시적 implicite 활용의 국면만을 단편적으로 다룰 것이다.⁴⁾ 이러한 작업은, 사전 편찬이 얼마나 문법 문제의 언어학적 연구 성과에 입각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해야만 언어 사전 부분이 강화되고, 일관성 있고 정규화된 normalisé 언어 사전이 생산될 수 있는가를 보여줄 것이다.

실례를 다루기에 앞서, 사전의 일반적 성격과 구조에 대한 몇 가지 예비적 지식을 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우리의 글은 현대 불어 사전학의 연구 성과를 응용하고 있으며, 한국어 자료는 주로 우리의 한국어 동사 구문에 대한 개인적 관찰과 연구의 결과를 활용한 것임을 밝혀 둔다.

2. 예비적 지식

2.1. 사전의 성격⁵⁾

사전은 여러 특징적 성격을 복합적으로 지닌 경험적 대상으로서의 책이다. 사전이라는 책은 우선 다른 종류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양면적인 성격

4) 사전 구성에 있어 문법 정보의 명시적 explicite 표시의 문제는 방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주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일단을 살펴 보려고 한다.

5) 사전의 성격과 구조에 대한 일반적 지식은 홍 재성 의(1986 pp.184~186, pp. 189~192)의 서술 내용을 부분적으로 따온 것이다. 자세한 점들은 참고 문헌에 제시된 사전학 입문서들을 참조할 것.

을 갖고 있다. 우선 그것은, 정보 소통이라는 사회·문화적 필요성에 따라 제작되어, 판매-구입의 유통 과정을 통해 소비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로서의 책으로 규정될 수 있다. 한편, 사전은 다른 책들과 같이 인쇄된 텍스트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사전 편찬자라고 하는 실체의 주체에 의해 작성·선출된 언어적 전언 message의 총체이며, 또한 언술 énoncé의 연쇄로서 처음과 끝이 있는 폐쇄적 텍스트인 것이다.

이러한 사전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들과 구별되는 주요한 형식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활자를 달리해서 인쇄한 일련의 표제어 mot-entrée와 이에 뒤따라 표제어에 대한 여러 정보 내용을 기술한 항목 article의 연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전은 서로 다른 제목을 지닌 수많은 일련의 불연속적 하위 텍스트들의 모임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하위 텍스트인 사전 항목에는 표제어로 채택된 언어 기호로서의 언어 요소——대부분이 단어에 해당되므로 흔히 는 단어와 동일시되는——에 대한 다양한 언어적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정보들은 사전을 찾고 이용하는 독자들이——텍스트의 수신자인——필요로 하는 정보인 것이다. 이와 같이 독자에게 생길 수 있는 의문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지식을 제공해 주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사전은 교과서로 대표되는 교육적 텍스트 texte pédagogique (또는 didactique)의 일종으로 분석될 수 있다.⁶⁾

한편, 기본적으로 교육적 성격을 지닌 사전 텍스트는, 언어외적 사물이 아니라 언어 요소를 바로 지칭 대상 référent으로 삼아 그것이 지닌 여러 언어적 속성을 일관된 방식으로 분석·기술함으로써, 어휘라는 언어의 국면에 대한 전반적 지식을 표현하고자 하는 점에서, 언어학자들의 저작이나 마찬가지로 메타 언어적 métalinguistique(또는 메타 기호적 metasémiotique)인 텍스트인 것이다. 이렇게 사전이 메타 언어적 텍스트인 한에서, 사전

6) 사전 텍스트의 교육적 성격은 외국어 학습의 중요한 도구가 되는 이종어 사전 dictionnaire bilingue의 경우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일반 단일어 사전 역시 모국어 화자를 위한 평생 교육의 참고서가 될 수 있다. 또 근래에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단일어 사전의 교육적 기능을 명시적으로 표출하는 학습 사전도 개발되고 있다.

편찬은 언어 연구와 불가분의 일체적 consubstantiel 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전을 과학적 텍스트로서의 언어학적 저작과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전이 한 언어의 어휘에 대한 과학적 지식으로서의 언어학적 지식을 정확하게, 조직적으로, 또 일관된 방식으로 제공해 주어야 하는 점에서 과학적 텍스트의 성격과 무관한 것은 아니겠으나, 그것은 근본적으로 일반 독자들을 위한 교육적 텍스트이므로 언어 과학적 지식을 대중화, 일반화된 vulgarisé 형태로 재생산하거나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한편, 사전 텍스트는, 특히 언어 사전의 경우에는, 순수한 과학적 텍스트와 달리, 규범적 텍스트 texte normatif의 측면이 강하다. 그것은 사전이 독자들의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면서 동시에 독자들이 그 정보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텍스트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때 언어 사용자인 독자들에게 요구되는 행동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성격을 띤 언어 행위이다. 사전에서의 서술은 한 언어 요소를 정확히 어떻게 발음하고 표기할 것인가, 또는 그것을 정확히 어떠한 의미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 준거가 되는 규범적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 텍스트는 그것이 읽혀지는 사회의 구성원들의 언어 행동의 일면을 지배하는 규범, 모형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다.⁷⁾

2.2. 사전의 구조

텍스트로서의 사전은 다른 텍스트와 구별되는 두드러진 형식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이중적 구조 structure double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전이 형식적으로 두 가지 구조의 상관적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7) 규범적 텍스트의 대표적 예는 법률 텍스트 texte juridique 일 것이다. 사전 텍스트의 규범적 성격은 더욱 폭넓고 철저하게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전 텍스트는 순수한 과학적 텍스트와 구별되는 이데올로기적 텍스트의 측면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양상은 이 글의 주제와 관계가 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데올로기적 텍스트로서의 사전의 분석은 사전학 연구의 흥미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기로 하자.

사전 텍스트는 우선 표제어를 앞세운, 수많은 하위 텍스트들의 총체로 기술될 수 있다. 그런데 표제어들은 그 나름의 일정하고 관례적인 방식에 의해, 예컨대 표제어를 구성하는 글자들의 순차적 자모 순서에 따라 배열되어 있다. 이렇게 조직화된 표제어의 총체를 거시 구조 macrostructure (전통적 술어로는 nomenclature)라고 한다. 표제어는 거시 구조의 구성 요소가 되는데, 이들이 바로 일정한 순서에 따라 나열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조'를 운위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표제어에 뒤따르는 하위 텍스트, 다시 말해서, 사전의 각 항목 article은 대체로 공통의 일관된 형식을 갖고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의 내용이 표제어로 선별된, 의미를 지닌 언어 기호에 관한 다양한 정보인 점에서, 사전의 하위 텍스트는 표제어를 주제 sujet(또는 thème)로 하는 일련의 서술 prédicat로 분석될 수 있는데, 이들 서술은, 예컨대, 발음 표시, 어원, 품사나 기타 문법적 성격, 사용 분야, 화계 niveaux de langue 표시, 정의, 용례 등등의 순서로 분류·배열되어 있고, 이러한 다양한 언어 정보는 사전 텍스트의 기술에 독특한 메타 언어 체계에 의해 일정하게 규약화 codifié되어 있다.⁸⁾ 또한 각 항목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폐쇄적 단락을 이룬다.⁹⁾ 이와 같이 표제어의 총체적 구성 macrostructure에 대하여, 폐쇄적 단락으로서 일정한 내적 구성을 지닌 사전 항목을 사전의 미시 구조 microstructure라고 한다.

사전은 이렇게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가 결합되어 이중적으로 구조화된 텍스트인 것이다. 사전의 유형은 거시 구조의 규모, 다시 말해 표제어 총체의 규모나, 표제어의 배열 원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또 한편, 미시

8) 사전 항목의 기술에 동원되는 언어는, 단일어 사전인 경우, 기술 대상이 되는 언어와 동일한 자연 언어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메타 언어적 지위를 갖고 있다. 또한 사전 기술의 메타 언어는 자연 언어만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약자, 다양한 기호, 활자 등을 함께 활용한다. 사전 항목의 기술은 단순한 대상 언어의 언술이 아닌 메타 언어적 언술 énoncé métalinguistique이다. 사전 텍스트가 메타 언어적 텍스트인 것은 바로 이러한 메타 언어적 언술의 모임으로서이다.

9) 물론 다른 표제어의 참조 표시나 동의어, 반의어의 지적 등은 사전 항목의 폐쇄성을 완화시킨다.

구조의 내용이 사전의 유형화를 크게 좌우하기도 한다. 특수한 경우는, 거시 구조만으로 구성되는 사전도 있다(역순 사전이나 작은 사전).

3. 사전의 거시 구조와 문법 정보 : 몇 가지 실례의 분석

표제어에 대한 문법 정보가 미시 구조 내에 표시되는 주요한 언어 정보임은 물론이다. 특히 언어 사전의 경우, 어떠한 문법 정보가 어떻게 사전에 수록되어야 하는가는 바로 미시 구조의 구성에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¹⁰⁾

그러나 문법 정보가 미시 구조 내에서 가능한 한 명시적·체계적으로 표시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거시 구조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관여되기도 한다. 이제 거시 구조의 구성과 문법 정보의 활용 양상을 몇 가지 실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3.1. 합성 동사의 예

사전의 표제어로 어떠한 성격의 언어 단위를 등재할 것인가(예를 들자면, 동사 활용 어미나 접두사/접미사도 수록할 것인가 또는 합성어의 구성 요소도 낱말이 분할하여 모두 수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

10) 주 4)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언어 사전으로서의 현대 한국어 사전의 개편을 위해 몹시 중대한 문제로 생각되지만, 한편 많은 연구와 검토가 요구되는 주제이다. 우리의 판단은 현행 한국어 사전의 가장 심각한 취약점은 바로 표제어에 대한 문법적 정보가 일관성이 결여된 채 너무 빈약하게 수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동사 항목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문법 정보로는, 그 동사가 어떤 구조의 단문에 사용될 수 있는가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단문의 구조는 특징적 보어의 존재 유무나 보어의 유형(주로 뒤따를 수 있는 격조사의 형태에 의해 일차적으로 판별되는), 또는 규칙적으로 대응되는 문장 구조의 존재 등에 의해 특징지어지므로 이와 관련된 속성의 지적이 필요한 것이다. 문장적 보어를 용인하는 동사의 경우 보문소의 형태에 따른 보문의 유형 역시 명시적·조직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사전의 경우, 자동사, 타동사 용법의 구분밖에 표시가 없으나, 그것도 많은 경우 부정확하고 일관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로서는 여러 제안 사항이 있으나, 3절에서 한·두 경우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다른 기회에 소개를 해 보기로 한다.

해서는, 형태소를 확인하고 확정하는 형태론적 분석의 성과나 형태소를 유형화하는 연구 작업의 성과를 활용하여야 함은 물론이다.¹¹⁾ 그리하여 현행 한국어 사전은 내려다보다, 들여다보다, 쳐다보다, 건너다보다 등의 표현을, 복합적 구성을 가지면서도 하나의 낱말처럼 기능하는 합성어로 판별하여 표제어로 채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몇 가지 사전을 비교해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을 합성어로 처리하여 표제어로 올리느냐 하는 판단에 있어서는, 사전에 따라 선별이 다르거나 같은 사전 내에서도 형평이 결여된 예를 볼 수 있다. 합성어의 선별을 일관성 있게 정규화하기 위해서는, 합성어 판별이 제기하는 형태·통사론적 문제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특히 의연적 extensionnel 연구 작업이 선행되어, 그 결과를 조직적으로 사전 편찬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의연적 연구라 함은, 엄격한 언어적 기준에 의해 설정되는 어휘 부류에 속하는 어휘 요소를 가능한 한 빈틈없이 총망라하여 목록화해 보는 작업을 말한다. 사전 편찬 작업이 이러한 성격의 문법 연구에 의거하게 될 때 그 사전은 거시 구조의 차원에서부터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는 언어 사전의 면모를 갖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적을 예시해 줄 수 있는 경우로 우리가 관심있게 살펴본

- 11) 그렇다고 거시 구조의 구성이 일관된 언어학적 분석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표제어의 언어학적 성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제어는 모두 어휘적 형태소와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낱말로 정의될 수 있는 단위도 아니다. 그것은 조사나 동사 활용 어미, 또는 파생 접사 등도 모두 표제어로 수록되기 때문이다.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이 가정하는 최소 유의미 단위로서의 형태소만을 표제어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다. 사전에는 형태소로의 분할이 가능한 복합 구성의 파생어나 합성어가 모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낱말이 다 수록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동사나 형용사 등은 여러 다양한 변화형 중에서 관례적으로 약정화 lemmatisé 된 대표형 (한국어의 경우 어간-다 형)만이 표제어로 수록된다. (그러나 형태소 차원에서의 변이형 -은/-는, -러/-으러 또는 달다와 그 변칙 어간 다 등은 표제어가 된다).

이렇게 보면 사전의 표제어는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동질성이 없어, 순수한 언어학적 분석 단위라기 보다는, 독자적인 사전학적 처리 단위를 이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합성 동사	사전	큰 사전	한국어사전	신기용·철(신)	이희승(구)	이희승(신)
전nergada		+	+	-	+	+
전nergoda		+	+	-	+	+
전nergadana		-	-	-	-	-
걸nergada		-	-	-	+	+
걸nergoda		-	-	-	+	+
걸nergadana		-	-	-	-	-
다nergada		-	+	+	-	+
다nergoda		+	+	+	+	+
다nergada		+	+	+	+	+
다nergada		+	+	+	+	+
떠nergada		-	-	-	-	-
떠nergoda		-	-	-	-	-
뛰nergada		+	+	+	+	+
뛰nergoda		+	+	+	+	+
뛰nergadana		-	-	-	-	+
뛰nergadeoda		+	-	-	+	+
지nergada		+	+	+	+	+
지nergoda		-	+	+	+	+

이동 동사의 예를 들어 보기로 하자.

우리는 홍 재성(1982, 1985b)의 연구에서 -러연결 어미문을 용인한다는 순수한 구문적 특성에 의거하여 이동 동사로 지칭될 수 있는 동사 어휘류의 설정을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러연결 어미문과 결합될 수 있는 한국어 동사 어휘로, 출발하다, 외출하다 등 한자어 동사 100 개 정도를 포함하여, 가다, 오다, 헤매다, 새다, 꺼지다 등등 280 여 개를 목록화하였다. 이 목록의 순수 한국어 이동 동사 181 개 중, 그 $\frac{2}{3}$ 이상인 137 개의 동사

가 V-어-가-다/-오다 형 (예 : 올라가다, 올라오다, 내려가다, 내려오다)의 합성 이동 동사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이동 동사로 분류될 수 있는 합성 동사가 사전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나, 특히 거시 구조의 구성 요소인 표제어로 어떻게 올라 있나를 살펴보면, 앞 페이지의 표가 보이는 바와 같이 사전 사이의 불일치가 확인되고, 또한 동일 사전 내에서의 일관성의 결여도 관찰된다.¹²⁾

앞. 페이지의 표는 우리가 합성 이동 동사로 분석하는 요소들 중에서 임의로 일부를 선정하여 사전에서의 등재 여부를 비교해 본 것이다. +표시는 수록이 되었음을, -표시는 빠져 있음을 나타낸다.

이 표를 보면, 걸어가다/걸어오다는 이 회승(구), 이 회승(신)만이 수록하였고, 다른 사전에는 기록된 건너가다/건너오다가 신 기용·철(신)에는 빠져 있다. -어다니다 형의 합성 동사는 모두 탈락이 되어 있으나 이 회승(신)이 뛰어다니다만을 발탁(?)하였다. 한국어사전/신 기용·철(신)에는 등재 안 된 뛰어들어오다가 나머지 사전에는 모두 선정되었다. 한편 큰사전은 지나가다는 올리면서 지나오다를 탈락시켰고, 이 회승(구)/큰사전은 다가오다를 수록하면서 다가가다를 놓침으로써 일관성의 결여를 보여 주었으나, 이 회승(신)이 뒤늦게 올바르게 교정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복합 표현의 합성 동사로서의 성격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형태·통사론적 속성 및 의미 해석을 가능한 한 낱말이 조사·분석하는 연구가 요구될 것이며, 사전에서의 합성 동사의 선별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 입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¹³⁾

3.2. 다의어 처리와 동형어 처리 : 분할 배열 dégroupement 의 문제

한편, 거시 구조와 문법 문제에 상관하여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또 하나는, 표제어의 후보가 될 언어 단위가 여러 의미에 대응되는

12) 우리가 이 글에서 검토의 자료로 활용하는 사전은 참고 문헌에 앞서 그 일람을 약칭과 함께 제시하였다.

13) 여기서 언급의 대상이 되는 137개의 합성 이동 동사의 목록은 특히 Hong (1982)에 제시되어 있고, 아울러 그것들을 합성 동사로 판별하게 되는 다양한 논거도 소개되어 있다.

것으로 판단될 때, 이것을 다의어 polysème로 처리할 것인지 동형어 homonymie로 처리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다의어로 처리한다면 단일 표제어 아래에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 의미 acception를 한 항목 내에 통합하여 기술하게 될 것이고, 동형어로 처리한다면, 별개의 항목을 구성하는 표제어로 구분하게 될 것이다. 현행 한국어 사전들이 이를 위해 활용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이 희승(신)에서 다의 기술은 아홉 개의 항목으로 구분되어, 다음과 같은 아홉 개의 동형어로 처리되어 있다.

다¹ 圖【악】음계의 제 1 음인 도(do)의 이름. ㄱ~장조.

다² 茶【茶】圖<궁중>송냥.

다³ 田圃 ①있는 대로.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ㄱ~ 가져라. ②남김 없이. ㄱ~ 닳았다. ③어떤 것이든지. ㄱ~ 좋다. ④거의. 거만. ㄱ~ 죽게 됐다. ⑤「또...까지도 (모두)」의 뜻으로, 가벼운 놀람, 새삼스런 감탄, 은근한 비꼴을 나타내는 말. ㄱ~그런 도서관이 ~ 있어/별놈 ~ 보겠다/별 말씀 ~ 하십니다/그 주제에 양복을 ~ 입었네. ⑥미래의 일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ㄱ~비가 오니 약유회는 ~ 갔다. 田圃 ①있는 것 전부. ㄱ~이게 ~다/~들 어디 갔느냐. ②생각할 수 있는 한도의 끝. ㄱ~부자면 ~냐, 사람을 이렇게 팔시다니.

[다 닳은 대갈마치라] 몸이 다부지고 닳을 대로 닳아 마음이 독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 [다 먹은 죽에 코 빠졌다 한다] ①맛있게 먹었으나 알고 본즉 불결하여 속이 꺼림칙하다는 말. ②잘 먹고 나서 그 음식에 대하여 불평을 한다는 말 [다 밝게 범두와 소리라] 순경(巡更)꾼이 밤새도록 자다가 새벽 녀에 비로소 일어난다는 말로, 때가 이미 늦음을 이르는 말. [다 팔아도 내망] 결국에는 제 이익이 된다는 말. [다 퍼먹은 김칫독] 앓거나 굶주려서 눈이 움푹 들어간 사람을 비유하는 말. [다 퍼먹은 김칫독에 빠진다] 남들이 다 이(利)를 보고 물러난 뒤에, 몇 모르고 덤벼들었다가 크게 손해를 본다는 말.

다⁴ 困/다가³. ㄱ~어디~ 두었소. *에다.

다⁵ 困서술격 조사 「이다」의, 받침 없는 체언에 쓰일 때의 형태. ㄱ~너는 환자~/이 방면의 전문가~. *이다⁵.

다⁶ 如【如】圖<이두>다⁵.

다¹ 𪛗 「달다」의 변칙(變則) 어간. ㄱ~니 술/저울에 ~되니다/얼굴이 화끈화끈 ~오.

다² 多【多】圖 명사 위에 붙어서 많음의 뜻을 나타내는 말. ㄱ~방면(方面)/~탄두(彈頭)/~목적.

-다 어미 ①그 말의 원형을 나타내는 어미. ㄱ~가~. *-ㄴ다². ②형용사의 어간에

붙어 현재형을 서술할 때 끝맺는 종결 어미. 1) 밝~. ③/ -다고 1) 돈이 없~ 낙심
마라. ④/ -다가. 1) 참새를 잡았~ 놓쳤다.

동형어 구별의 기준으로는 몇 가지가 동원되었다. 우선 품사의 상이성에 의해 명사로만 사용되는 다와 부사 다, 조사 다가 서로 구별되고, 형태소 유형의 상이성에 의해 용언의 어미 다, 달다의 불규칙 어간 다, 접두사 다가 구분되었고,¹⁴⁾ 또 명사로 분류되는 다는 다시 순수 한국어/한자어의 구분이라는 통시적 고려에 따라 음의 이름으로서의 다와 다(茶)가 별개의 표제어로 등재되었다. 그런데, 동일 품사의 순수 한국어 어휘의 경우도 동형어 처리가 되는데, 예컨대 같은 사전에서 동사 같다는 세 개의 동형어로 구분되어 있다.¹⁵⁾

같다¹ **타르변** 먼젓 것 대신에 새 것으로 바꾸다. 『꽃잎을 ~./이름을 ~.』

갈:다² **타르빈** ①물건을 닳게 하기 위하여 다른 물건에 대고 문지르다. 『먹을 ~
②숫돌 같은 데다 문질러서 날이 서게 하다. 『칼을 ~. ③땃돌로 가루를 만듦다.
『녹두를 ~. ④문질러서 광채를 내다. 『옥(玉)도 갈아야 보석이다. ⑤노력하여
더욱 훌륭하게 함. 연마(研磨)함. 『갈고 닦은 솜씨.

같:다³ **타르변** ①쟁거나 극쟁이 같은 것으로 논발의 흙을 파 뒤집다. 1발을 ~. ②

- 14) 사전 항목에서, 정의에 앞서서 제시되는 문법 정보는, 동일 표제어에 대해서 일지라도 그 사전이 압암리에 채택하는 문법 기술의 체계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있다. 가령 의존 명사 데를 사전에 따라 **ㄷᄇᄇ** (불완전 명사: 한국어사현/신 기용·철(신)), **ㄷᄇᄇ** (형식 명사: 이 회승(신)) 또는 **꺄ᄇᄇ** (꺄름발이 이름씨(?) : 큰 사전) 등으로 표시한 바와 같이 사전 기술을 위한 메타 언어의 요소로서의 문법 술어가 다른 경우도 있으나, 무엇보다 사전은, 여러 경쟁적 분석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의 하나를 채택함으로써 해서, 사전 사이의 깊은 갈등을 보여 주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책이다/저것은 의자다 에서와 같은 문장에 나타나는 -이다/-다는 경우는 이러한 상이성이나 갈등을 가장 첨예하게 보여 주는 예가 될 것이다. -이다/-다는 한국어사현, 신 기용·철(신), 이 회승(구)에서는 **어미**, 큰 사전에서는 **꺄음씨**로 지적되어 있다. 조재수(1984)에 의하면 문 세영 조건어 사전은 지정사, 이 윤재 표준 조건말 사전은 토씨로 기술하고 있다. 이 회승(신)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조사로 취급하였다. 우리는 다른 조사로 분석하여 -이다의 변이형으로 기술한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의 분석으로는 -이는 독립된 용언이고, 이다의 다는 평서문의 종결 어미 (또는 용언이 사전의 표제어로 등재될 때 취하는, 어간에 뒤따르는 어미)이므로, 이 경우의 다는 독립된 표제어가 될 수 없다.
- 15) 한국어사현/신 기용·철(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경작(耕作)하다. 농사 짓다.

우리는 같다가 이렇게 세 개의 동형어로 취급되는 근거를 분명히 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이 세 개의 같다가 자기 별개의 어원어 *étymon* 를 갖는 낱말인지, 또는 동일한 어원어로부터 분기되어 현대 한국어에서는 서로 구별되는 다른 의미를 갖는 별개의 낱말로 변화한 결과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¹⁶⁾ 그것은 표제어에 대한 통시적 정보의 하나로 어원어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¹⁷⁾

그렇다면 세 개의 동사 같다를 구분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전 편찬자의 직관적 의미 판단에 의한 구별 아니면, 기간 사전에서 세 가지로 구분해 온 관례(역시 근거가 불명료한)의 답습일 수 있다. 우리는 이 두 경우가 모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며, 바로 표제어의 후보가 될 수 있는 언어 요소의 통사적 속성을 고려하여 다의어/동형어 처리의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전학에서는 관례적으로(구미 사전의 경우에는(어원어의 동일성, 표기 형태의 동일성에 입각하여) 다의어 취급을 하던 표제어를, 형태론적 특성의 차이, 특히 그것이 사용되는 문장들의 구문적 차이에 입각하여, 동형어로 분리 처리하는 방식을 분할 배열 *dégrouement* 이라고 한다. 한국어 사전의 경우도, 부분적으로나마 분할 배열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현대적 언어학 연구가 가정하는 언어관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¹⁸⁾ 관례적이고 경험적인 기준이 아닌, 엄밀하고 명시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거시 구조가 구성되는 언어 사전의 면모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안이 아닐까 판단된다.

16) 최 창렬(우리말 어원 연구, 일지사. 1986)은 이 세 가지 같다는 分·粉의 의미를 지닌 𣎵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17) 이러한 사전은 한국어가 불행히도 어원 연구 분야에서 몹시 불리한 처지에 있는 언어인 까닭에 이 분야의 연구 성과가 사전 편찬에 활용될 만큼 축적되지 못 해서이리라.

18) 분할 배열은 i) 언어를 기호의 체계로 가정하며, ii) 공식적 관점을 우위에 두고, iii) 체계의 요소로서의 언어 단위는 여타 요소와의 관계(계열적 관계/통합적 관계) 속에서 그 정체 *identité* 가 확인된다는 구조주의적 언어관에 입각한 사전 편찬의 방법론적 원리이다.

이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실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가. 슬다와 그 밖의 몇몇 동사의 경우

이 회승(新)에서 슬다는 다섯 개의 동형어로 처리되어 있는데, 네 번째 슬다의 항목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슬다⁴ 태르뎨 ①벌레나 물고기 등이 알을 낳기어 놓다. ㉠벌레가 잎에 알을 ~. ②쇠
붙이에 녹이 생기다. ㉡녹이 ~.

위의 항목 기술은 우선 부정확하다. ②의 의미로 슬다는 타동사 용법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¹⁹⁾

- (1) a. 낫그릇에 녹-(이+*을) 슬었다.
b. *낫그릇이 녹을 슬었다.
c. *녹이 낫그릇을 슬었다.

따라서 ②의 의미는 자동사 용법에 대응됨을 명시적으로 지적해야 할
것이다.²⁰⁾

그런데 문제는 이 자동사 용법을 동일 항목 내에서 지적할 것인가 또는
별개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타동사
의 슬다는 두 표제어로 구별하여 동형어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그것은 슬다의 두 의미 사이의 공통성을 판별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슬다
의 두 의미에 대응되는 두 구문 사이에 어떤 규칙적인 관계를 가정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타동사 슬다⁴는 다음과 같은 구문에 실현되는 것으로 표시할 수 있다.

- 19) 또한 ②의 의미에는 곰팡이가 생기다의 뜻이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20) 자동사/타동사의 구분은 한국어 사전에서 동사 구문에 관하여 유일하게 —보
조 동사 용법의 지적을 제외하면— 체계적으로 표시된 통사적 정보이다. 그러
나 사전에서의 표현이 모든 동사 어휘를 대상으로 하여 동사 어휘 하나하나의
용법을 세밀히 관찰하고 분석한 언어학적 연구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부정확하거나 일관성이 없고 누락된 경우가 많으며, 또는 그 구분 자체가
명시적·합리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우리는 타다(乘)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이러한 점을 검토해 본 경험이 있다(홍 재성 1984). 여기서 슬다
의 처리 역시 부정확한 경우의 예가 될 것이다. 가령 이 회승(新)에서 시작
하다를 타동사로만 지적하거나 돌다를 자동사로만 표시한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 (2) N_0 N_1 -를 N_2 -에 **V** (N_0 는 물고기나 벌레, N_1 은 특정 명사 **알**이나 **쉬**, N_2 는 장소 명사)

한편 자동사 **슬다**²가 나타나는 구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²¹⁾

- (3) N_0 N_1 -에 **V** (N_0 는 특정 명사 **늑** 또는 **곰팡이**, **좀**, N_1 은 장소 명사)

위의 (2)-(3) 구문에서 **V** 위치에 동일한 형태의 동사 **슬다**가 실현되지만, 각 구문의 N_0 , N_1 또는 N_2 위치의 명사 분포를 조사해 보면, (2)-(3) 사이의 어떠한 규칙적 대응 관계도 설정하기 어렵다.²²⁾ 따라서 두 개의 동형어 **슬다**¹과 **슬다**²를 구분하여 사전에 수록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²³⁾

슬다와 유사한 경우를 하나 더 들어 본다면 **새다**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새다**의 용례에서 두 동사 **새다**를 구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자 한다.

- (4) 독에서 물이 **새다**.
(5) 어느 림에 자기들끼리만 새 버렸다.

(4)-(5)의 **새다**는 ‘이동’의 의미를 공통으로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두 용례가 보여 주는 문장의 통사적 속성은 아주 판이하다. 우선 (4)의 유형의 문장은 규칙적으로 (4)’의 유형에 대응된다.

- (4)’ ^동~~물~~이 **새다**.

예문을 하나 더 들어보자.

- (6) 지붕에서 비가 **새다**.
(6)’ 지붕이 **새다**.

이 두 유형의 문장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21) **슬다**는 다음에 용례가 보이는 **고이다**와 같은 유형의 자동사로 분류될 것이다.

i) 웅덩이에 빗물이 **고였다**.

22) 다음의 예문을 보면 (2) 구조의 N_2 위치와 (3) 구조의 N_1 위치에 동일한 장소 명사가 분포될 수 있음이 확인되지만, 이것은 특정한 명사에 한정된 특이한 경우일 뿐 규칙적 성격은 없다.

ii) a. 파리가 똥장에 쉬를 **슬었다**.

b. 똥장에 곰팡이가 **슬었다**.

23) 실제로 한국어사편과 신 기용·철(신)에서는 동형어 처리를 하였다.

(7) a. $\begin{pmatrix} \text{보} & \text{지} & \text{상} \\ N_{0i} & N_{1j} & \end{pmatrix}$ 에서 V 새다
 $\longleftrightarrow$ b. $N_{0j} V$

동일한 동사의 가능한 두 구문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관찰된다.
 (7) a 구조의 장소 보어 N_1 위치에 분포되는 명사가 규칙적으로 (7) b 구조의 주어 위치 N_0 에 실현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5)의 새다는 이렇게 특징지어질 수 없는, -러 연결 어미문을 용인하는 이동 동사이다. (4)와 (6)의 새다를 새다¹로 표시하고, 이것이 (7)의 구조적 대응 관계로 특징지어진다면, 이동 동사 새다²는 다음과 같은 특징적 구문에 실현된다.

(8) N_0, W, V -러 N_1 -**Loc**- V

(W 는 -러 연결 어미문에 내포된 동사의 가능한 보어, **Loc**는 -로를 비롯한 장소 표현의 격조사)

(9)의 새다의 용례는 (8)의 구문을 예시한다.

(9) 자기를 끼리만 밥 먹으러 어디론가 새 버렸다.

현행 한국어 사전에는 여기서 소개된 새다¹/새다²의 통사적 속성이 지적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모두 다의어로 처리되어 있다.

이에 비해, 똑같이 자/타동사 구문에 실현될 수 있는 이중 용법의 동사지만, 다의어 처리가 합리적인 경우의 동사들도 있는데, 우선 움직이다류의 동사가 그 예가 될 것이다. 신기용·철(신)이나 이희승(신) 등 대부분 사전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움직이다는 (10) a-b의 예문이 보여주듯이 자/타동사 용법을 갖는다.

(10) a. 차가 움직인다.

b. 철수가 차를 움직인다.

그런데 움직이다는 다음과 같이 표시될 수 있는 문장 구조 사이의 대응 관계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중립 동사 *verbe neutre*이다.

(11) a. $N_{0i} N_{1j}$ -를 V

$\longleftrightarrow$ b. $N_{0j} V$

즉, 움직이다와 같은 유형의 동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i) 동일 형태의 동사가 자/타동사 구문에 나타나면서, ii) 타동사 구문의 N_1 위치에 분포되는 명사가 규칙적으로 자동사문의 N_0 위치에 분포되며(움직이다의 경우 (10) a-b가 예시하는 차 이외에도 기차, 돌, 바위, 공장, 세계, 손가락, 마음 등 여러 명사가 이러한 분포를 보인다), iii) 동시에, 자/타동사 구문 사이에는 녹다/녹이다, 타다/태우다와 같은 동사의 쌍 사이에서 관찰되는 바와 유사한 일정한 의미 관계가 가정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특성이 움직이다 한 동사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리다,²⁴⁾ 엮추다 등 여러 동사의 경우에 나타난다. 따라서, 중립 동사는 다의어 처리 방식이 타당하다고 본다.

대칭 동사 용법과 비대칭 동사 용법²⁵⁾ 동시에 갖는 만나다, 좋아하다, 부딪치다 등의 동사에 대해서도 이들 동사를 특징짓는 대칭/비대칭 구문 사이의 관계가 생산적 productif 이 못 됨에도 불구하고, 다의어 처리 방식이 적합할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좋아하다는 다음과 같이 자동사적 대칭 동사의 용법과 비대칭 동사로서의 타동사적 용법이 있다.

(12) 철수는 영화-(와+를) 좋아한다.

한국어사전, 이 회승(신), 신 기용·철(신) 등의 사전은 좋아하다를 타동사로만 지켰다. 그러나 (12)에서 보듯이 N_1 -와를 보어로 선택하는 자동

24) 내리다의 경우는 (11) a-b의 대응관계의 실현이 N_1 에 분포되는 명사에 따라 제한된다.

iii) a. *철수는 영화를 내렸다.

b. 영화는 내렸다.

iv) a. 정부는 (물가+세금+지시+명령...)-을 내렸다.

b. (물가+세금+지시+명령...)-이 내렸다.

v) a. 철수는(집+사다리+줄...)-을 내렸다.

b. *(집+사다리+줄...)-이 내렸다.

따라서 중립 동사의 경우 자/타동사 구문의 실현 조건이 각 구문에 분포되는 어휘 요소에 따라 제약을 받는 양상을 사전의 항목 기술에 반드시 내포시켜야 할 것이다.

25) 대칭 동사 구문 분석의 자세한 점은 홍 재성(1985)를 참조할 것.

사전 새칭 동사의 용법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에서는 우선, 자동사적 용법의 지적이 있어야 하겠고, 나아가서 이러한 자동사 용법의 특징은 N_1 -와의 보어를 취하는 데 있음을 명시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이러한 특징을 지니는 모든 동사에 대해서) 지적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12)와 같은 유형의 문장에서 N_1 -와는 바로 그 문장 구조를 특징짓는 필수적 보어이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어에서 보어 뒤에 오는 격조사 -와/-를 사이의 교체 가능성을 갖는 동사는, 좋아하다 이외에 사랑하다, 만나다 등 몇 개에 국한되지만, 두 구문 사이에는 일정한 대응 관계를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두 구문에서 N_0/N_1 위치에 분포되는 명사가 동일하고, 두 구문 사이에는 상호성(대칭 구문)/일방성(비대칭 구문)의 대립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일정한 의미 차이가 관찰되는 까닭이다. 이러한 논거로 (12)의 두 가지 좋아하다는 동형어로 구분할 필요가 없이 다의어 처리가 합당하다고 본다.²⁶⁾

나. 다니다의 분석

우선 다니다 항목이 사전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시해 보자.

ㄱ. 다니다 ㉔①직장·학교 등에 늘 나갔다 오다. ★학교에 —. ②왔다 갔다 하다. 지나 가고 지나 오고 하다. ★한 길만을 —. ③어떠한 곳에 들러서 오다. ★오는 길에 집에 —어 오너라. ④드나들다. ★늘 —는 다방. ⑤근친(親親)하다. ★친정에 —. 이 회승(具)

ㄴ. 다니다 ㉔㉕ ①직장·학교 등에 늘 나갔다 오다. ㉕학교에 ~. ②왔다갔다 하다. 지나가고 지나오고 하다. ㉕같은 길로만 ~. ③어떤 목적 아래 왔다갔다 하다. ㉕사냥을 ~/출장을 ~. ④어떠한 곳에 들러서 오다. ㉕오는 길에 큰데

26) 만나다의 경우를 감지 언급한다면, 사전에 자/타동사 용법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보어의 형태나 유형에 대한 지적(특히 자동사 구문의 경우)이 없고, 목적 보어로 분포되는 명사에 따라 두 구문 사이의 관계에 제약이 발생하는 점을 전혀 지적하지 않았다.

vi) a. 철수는 영희-(와+를) 만났다.

b. 철수는 (비+꼭뽕우)-(*와+를) 만났다.

따라서 N -와의 용인성은 물론, 내리다의 경우처럼 두 구문 사이의 관계에 작용하는 어휘적 제약의 양상도 명시적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에 다니어 오너라. ⑤드나들다: 『늘 다니는 다방/병원에 ~. ⑥근친(親親)하다. 『친정에 ~. 이 회승(新)

- ㄷ. 다니다 ㉠ ①일정한 곳을 지나가고 지나오고 하다. go to 『학교에 ~. ②볼 일을 보거나 어떤 목적으로 왔다갔다 하다. attend 『출장을 ~/등산을 ~. ③볼일이 있어 어떤 곳에 들르다. drop 『고향에 다녀오다. ④어떤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서 배우다. ×단기다. 단니다. 먼기다. 당기다. 땡기다²⁾.

한국어사편

- ㄷ. 다니다 ㉠ ①[일정한 곳을] 지나가고 지나오고 하다. *한길에는 자동차가 다닌다. ②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다. *북두이는 뿔등산에서 뛰어 다니며 놀던 어린 시절의 추억에 잠겼다. 옥분이는 새옷을 떨뜨리고 다닌다. ③[볼일을 보러 어떤 곳을]계속해서 갔다 오다. *병원에 ~. 도서관에 ~. ④어떤 직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서 배우다. *계약 회사에 ~. 학교에 ~. ⑤일정한 목적 아래 왔다갔다 하다. *외국으로 출장을 ~. 평 사냥을 ~. 극장 구경을 ~. ⑥볼 일이 있어 어떤 곳에 들르다. *친정에 다니러 가다. 고향에 다녀서 서울로 가겠소. 신 기용·철(新)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사전에서는 다니다를 4~6가지의 뜻을 갖는 다의어로 기술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러한 구분이 어떠한 근거에 입각한 것인가 하는 점은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 통사적 속성의 공통되는 지점은, 이 회승(新)을 제외한 사전이, 다니다를 모두 자동사로 취급한 것이다. 이 회승(新)은 타동사 용법의 존재를 지적하였는데, 인용된 예문으로 보아 ③의 뜻에 대응되는 용법을 타동사 용법으로 분석한 듯하다(출장을 다니다/사냥을 다니다). 그 점이 분명하다면, 그것은 중요한 선택이다. 우리의 관점에서도 이와 같은 구문을 타동사문으로 분석한다.²⁷⁾ 다른 사전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예문을 인용하면서도 타동사 용법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이 회승(新)에 대해 우선 두 가지 지적을 하자면, 만약 사냥을 다니다와 같은 다니다 구문을 타동사문으로 분석한다면, 사냥을 가다/오다/내려가다 등의 이동 동사 구문도 모두 타동사문으로 분석하여, 가다, 오다, 내려가다 등도 타동사 용법이 있음을 일관성있게 표시했어야 할 것이다.²⁸⁾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통사적 속

27) 홍 재성(1986b) 참조.

성의 제시에 있어 통일성을 결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지적은, 이 희승(신)이 이러한 중요한 구문적 특성을 뜻풀이의 배열에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이다.

위의 자료에 대한 공통적으로 언급할 또 하나의 세부적 사항은, 사전들이, 인용된 예문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암암리에 구문상의 속성을 지적하는 이외에는, 표제어로 선정된 어휘 요소의 주요한 통사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점이다. 예를 들어, 다니다는 우리가 정의하는 바대로의 이동 동사의 하나로서, -러 연결 어미문을 용인한다는 중요한 통사 속성을 지니고 있다.

(13) 철수는 이태리어를 (배우러+가르치러) 다닌다.

또한 다니다는, 다른 이동 동사 가다, 오다 등과 같이, 위에서 언급된 출장/사냥 등을 목적 보어로 취하는 타동사 구문 이외의 또 하나의 타동사 구문이 가능하다. 그것은 다음의 예문이 예시한다.

(14) 철수는 여러 날 험한 산길을 다니면서 식물 채집을 했다.

우리는 (14)유형의 구문에서 산길을같은 보어가 행로의 보어로 지칭되는 목적 보어이며, 따라서 (14)는 타동사 구문의 예가 된다고 분석했다.²⁹⁾ 이러한 용법은 다른 사전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타동사 용법을 지적한 이 희승(신)에서도 언급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른 데에 있다. 그것은 이 희승(구)의 ③항·⑤항, 이 희승(신)의 ④항·⑥항,³⁰⁾ 한국어사편의 ③항, 신 기용·철(신)의 ③항에 지적된 의미(어떤 곳에 잠시 들르다)에 대응되는 다니다의 용법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판단은, 이러한 용법의 다니다를 다른 의미의 다니다와 명확히 구별하여, 다니다에 대해서 다니다¹/다니다²의 두 항목을 구분하는 동형어 처리 방식을 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28) 내려가다만 타동사 용법을 지적했으나 이 때에는 (물건+책상+집...)-을 내려가다의 경우를 표현한 것일 뿐이다.

29) 홍 재성(1983)참조.

30) 우리의 판단으로는 근친하다의 뜻을 별도로 구별해 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물론 두 범주의 의미는 모두 ‘이동’의 의미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 둘에 대응되는 다니다의 용법은 똑같이 -러 연결 어미문을 용인하는 이동·동사 용법이라는 점에서도 공통성이 있다. 다니다¹이 사용된 (13)에 대하여 다니다²의 다음과 같은 구문이 가능하다.

- (15) a. 철수는 선생님께 문안을 드리러 선생님 댁에 잠시 다녀왔다.
b. 영희는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며칠 다녀서 왔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다니다¹은 왕복 이동 또는 반복적 이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반면에, 다니다²는 일회적인, 단기간의 이동을 나타낸다는 차이 이외에도 이 두 다니다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형태·통사론적 차이를 보여 준다.

-다니다²는 그 활용에 있어 심각한 불구성, défektivité를 보여서, -어, -어서, -러 이외의 어떠한 활용 어미와도 결합이 불가능하다. -러와 의미상 유사한 -려고마저 다니다²와의 결합이 차단되어 있다.

- (16) a. 철수는 광주에 다녀왔다.
b. 철수는 집에 가는 길에 내게 다녀서 갔다.
c. 철수는 고향에 며칠 다니-(러+*려고) 갔다.
d. *철수는 고향에 다녔다.
e. *영희는 언니에게 다녔었니?^{31), 32)}

-다니다²는 이동·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러 앞에 분포될 수 있다. 다음 (17) a-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동 동사는 -러 연결 어미문의 내포될 수 없다.

- (17) a. 철수는 밖에 나가-(*러+려고) 아랫층으로 내려왔다.

31) (16) d-e가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잠시 들르다의 뜻이 아닌, 고향이나 언니에게 한동안 왔다갔다 했다는 뜻으로일 것이다. 다니다는 명사화 어미 -기나 -□ 동과의 결합도 불가능하다.

32) 따라서 다니다의 분할 배열 문제의 처리에 앞서, 들르다에 해당하는 의미의 다니다는 불구 동사 verbe défectif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이 항목 속에 명시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점은 데리다, 관하다, 대하다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 세 동사의 불구성을 신기용·철(신)은 정의 définition 부분에 통합하여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b. 철수는 5시 전에 방으-(*러+려고) 집에서 일찍 떠났다.
 c. 철수는 더 좋은 학교에 다니-(*러+려고) 강북으로 이사를 갔다.

그러나 다니다²는 -러와 결합이 가능하고, 오히려 -려고와의 연쇄가 불가능하다.

(18) 철수는 추석이라 고향에 다니-(러+*려고) (갔다+왔다+내려갔다...).

-다니다¹의 구문에서는 다른 이동 동사 구문이 그렇듯이, 교통 기관 명사가 주어 위치에 분포될 수 있다.

(19) a. 길에는 아직도 차들이 다닌다.

b. 통학 버스가 매일 애들을 실어 나르러 다닌다.

그러나 다니다²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용이 어렵다. 따라서, 항목 기술에서 통사적 특성을 명시적으로 표기하기에 앞서, 형태론적 불구성이나, 이동 동사이면서도 그것이 보이는 특이한 통사적 속성을 고려하여, 다니다²를 다니다¹로부터 별개의 표제어로 분리시키는 것이 사전 항목의 구성을 통일성 있게 정규화하기 위한 좀더 일관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4. 맺 는 말

우리는 이제까지 사전 편찬과 문법 문제가 맺을 수 있는 관계의 여러 국면 중에서 특히 사전의 거시 구조의 구성에 문법 문제의 해결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실례의 분석을 통해 살펴 보았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사전 편찬 작업이 얼마나 문법 문제에 대한 성찰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이려고 하였다. 나아가서 현대 사전학 이론의 성과를 수용하면서 또한 국어학 연구의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는 바람직한 언어 사전으로서의 한국어 사전의 편찬을 위해서는 문법 정보에 대한 적극적 고려와 활용이 필수적임을 아울러 드러내 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소개된 실례는 지극히 부분적으로 제한된 몇 경우에 불과하며, 앞으로 다른 지면을 이용하여 더욱 설득적인 예를 계속 제시해 볼 생각이다.³³⁾

33) 우리는 곧 다음 글에서 찾아가다/찾아오다의 경우를 세밀히 분석하여 이 글에서의 주장을 또 한번 뒷받침해 보고자 한다.

《참 조 사 전》

- 한글 학회 편, 1947. 큰 사전, 을유 문화사. 큰 사전
 이 희승 편저, 1961. 국어 대사전, 민중서관. 이 희승(구)
 신 기철·신 용철 편저, 1958. 표준국어사전, 을유 문화사. 신 기철·철(구)
 한국어 사전 편찬회 편, 1976. 한국어 대사전, 현문사. 한국어사전
 이 희승 편저, 1982. 한국어 대사전(수정증보판), 민중서림. 이 희승(신)
 신 기철·신 용철 편저, 1986. 새 우리말 큰 사전(제 7 차 수정 증보 제 1 판), 삼
 성 출판사. 신 기철·철(신)

*물결무늬 밑줄로 표시된 것은 본문에서 사용된 각 사전의 약칭임.

《참 고 문 헌》

- Collignon, L. et M. Glatigny 1978. *Les dictionnaires—Initiation à la lexicographie*, Paris: CEDIC.
- Dubois, J. 1983. Dictionnaire et syntaxe, *Lexique* 2,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 Dubois, J et Cl. 1971. *Introduction à la lexicographie: le dictionnaire*, Paris: Larousse.
- Fichez-Vallez, E. 1980. Relations de synonymie entre les verbes *porter* et *apporter*, *Bulletin du centre d'analyse du discours* No.5, Université de Lille.
- . 1981. A propos du verbe «porter»—analyse syntaxique et description lexicographique, *Modèles linguistiques* III-1, Université de Lille.
- Frandin, B. et J. Marandin 1979. Autour de la définition: de la lexicographie à la sémantique, *Langue Française* N°43, Paris: Larousse.
- Gross, G. 1981. Lexicographie et grammaire, *Cahiers de lexicologie*, 39-II, Paris: Didier.
- Ilson, R. (éd), 1985. *Dictionaries, lexicography and language learning*, The British Council by Pergamon Press.
- Mel'čuk, Igor et alii. 1984.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Recherches lexico-sémantiques I.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 Rey, A. 1977. *Le lexique: Images et modèles —du dictionnaire à la lexicologie*,

Paris: Armand Colin.

Rey-Debove, J. 1971. *Études linguistique et sémiotique des dictionnaires français contemporains*, La Haye: Mouton.

Wagner, R. L. 1967~1970. *Les vocabulaires français*, 2 vols, Paris: Didier.

Zgusta, L. 1971. *Manual of Lexicography*, La Haye: Mouton.

Zwanenburg, W. 1983. 《Dégroupement》 et 《regroupement》 dans le DFC et le Lexis, *Lexique 2*, Presses Universitaires de Lille.

조 재수, 1984. 국어 사전 편찬론, 서울: 과학사.

_____, 1986. 북한의 말과 글—사전 편찬을 중심으로, 한글 학회.

홍 재성, 전 성기, 김 현권, 1986. <사전학>, 불어학개론, 서울: 한국 방송 통신 대학.

홍 재성, 1982. Complexes verbaux et verbes de mouvement en coréen, 동방학지 33집, 서울: 연세 대학교 국학 연구원.

_____, 1983. 이동 동사와 행로의 보어, 말 8집, 서울: 연세 대학교 한국어 학당.

_____, 1984. 타다 동사의 두 용법, 인문과학 51집, 서울: 연세 대학교 인문 과학 연구소.

_____, 1985a. 현대 한국어 자동사적 대칭동사의 통사론적 정의, 인문과학 53집, 서울: 연세 대학교 인문 과학 연구소.

_____, 1985b. *Syntaxe des verbes de mouvement en coréen contemporain*, Amsterdam: John Benjamins B.V.

_____, 1986a. 통사 정보와 사전 기술, 서울 국제 언어학 심포지움(1986.7.29~8.1)

_____, 1986b. 이동 동사와 직접 목적의 보어, 한글연구 7. 서울: 연세 대학교 한불 문화 연구소.